면세유 세금 탈루방지대책 강구

권오규 부총리, 세원 투명성 제고위해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월29일 “탈루혐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2006년 마련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무자료 금,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채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면서 무자료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용금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가 2006년 첫 시행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시행 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확대하고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납세자 대신 정부가 세금을 정산해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시간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9>